# 야권,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 파상 공세

## "마늘·양파 가격 불안정, 장관직 중도하차 농정수장 부재 원인"

## "호남 농어업 분야 산적한 현안 불구 출마 위해 모두 사퇴" 지적

6·13 지방선거가 채 한달이 남지 않은 가운데 야권이 장관직을 중도하차하고 전남지사 출마를 한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파상 공세를 벌이고 있다.

민중당 이성수 전남도지사 후보는 15일 정부와 전남도에 마늘, 양파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하고 촉구하면서 김 후보를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성명을 통해 "마늘, 양파 생산면적, 생산량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다. 통계청과 농식품부의 예측은 두배이상 차이가난 것이다"면서 "이를 책임질 농식품부 장관 등 농정 책임자는 무책임하게 자리를 버리고 출세의 길로 갔다"고 김 후보를 겨냥했다.

그는 "수 십 년 동안 농민을 우습게 알아 온 농업정책이 지금도 관성적인 농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런 위기들을 지휘할 농정수장이 수개월 째 부재 한 것도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 후보를 압박했다.

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이날 "호남지역 산업의 근간인 농어업 분야 역시 산적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농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이 모두 출마를 위해 사퇴한 뒤 두 달이 넘은 지금까지 공석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전남의 경우 농가 규모 전국 2위를 차지할 만큼 농업 분야 비중이 크다. 그런데 농식품부 장관으로 임명 된지 1년도 되지 않아 사퇴해 농정 컨트롤타워 부재를 초래한 장본인이 전남지역 농가소득을 전국 1위로 만들겠다며 전남지사 후보로 나서고 있다"면서 "전남 유권자를 대놓고 무시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집권여당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호남 유권자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면서 "호남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없이 공직만 탐낸다면 호남민심이 매섭게 심판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 순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민주평화당 후보가 14일 오후 전남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단일화에 합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허석 후보와 대결하기 위한 단일 후보를 조만간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무소속 손훈모·양효석·민주평화당 이창용·무소속 윤병철 예비후보.

# 순천시장 선거, 야권 후보들 단일화 선언

## "민주당 후보와 1대1 구도 만들기 위해 원칙적 합의"

6·13 지방선거 전남 순천시장에 출마한 야권 후보들이 14일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다.

순천시장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무소속 손훈모·양효석·윤병철·민주평화당 이창용 후보는 14일 오후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 후보 단일화 및 1순위 후보를 지원키로 약속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빠른 시일내 여론조사 등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허석 후보와 대결하기 위한 단일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다.

후보들은 각자 서명한 민선 7기 순천시장 선거 후보 단일화 협약서를 통해 "4명의 후보는 지역감정에 기반해 더불어민주당 일당독재인 순천에서 시민의 다양한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복수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후보와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 후보 단일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2개의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해 각각 1000명씩 안심번호 50%, ARS 안심번호 50% 등 전화 여론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때 전화는 2017년 12월 이전 개통된 전화만 허용되며 응답자 중 1순위로 선택된 후보가 최종 단일 후보로 결정된다.

또 단일 후보가 확정되면 여론조사에 참여했던 나머지 3명의 후보는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다.

순천=김종영 기자

# 바른미래당, 광주 동구-광산구 '승부수'

## 구청장 후보 1명 등 16명 출전…교두보 확보 주목

옛 국민의당에서 갈라선 바른미래당이 광주 동구와 광산구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어 6·13 지방선거를 계기로 '호남정치 1번지' 광주에 교두보를 확보할 지 주목된다.

15일 바른미래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에서 광주지역 각급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바른미래당 후보는 현재까지 16명에 이른다.

기초단체장인 구청장 1명, 광역의원 7명, 기초의원 8명 등이다. 이 중 기초의원 서구 나 선거구에 출마한 송원영(63) 후보를 뺀 나머지 15명이 모두 동구와 광산구에 집중됐다.

광주지역 7명의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박주선(동남을), 김동철(광산갑), 권은희(광산을) 의원 등 3명이 바른미래당 소속이고, 이들 의원들의 지역구에 출마자들이 집중된 셈이다. 박 의원은 공동대표, 김 의원은 원내대표, 권 의원은 최고위원이다.

당 대표가 버티고 있는 동구에는 김영우(49) 전 광주시의원이 동구청장에 도전장을 내 광주 5개 구 중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과의 3자 대결을 펼치고 있다.

광역의원은 ▲동구1 양혜령(55·여) 전 광주시의원 ▲동구2 박대현(52) 동구의회 의장 ▲광산1 정진태(57) 전 국민의당 광산갑지역위 동협의회장단 단장 ▲광산2 문영주(41) 전 국회 비서관 ▲광산3 조승유(53) 광산구의회 의장 ▲광산4 김동호(43) 전 광산구의원 ▲광산5 김옥자(54·여) 광주시의원 등 7명이 등판했다.

이들 중 양 후보는 민주당 소속으로 동구청장 후보 경선에 참여했다가 불공정 경선을 이유로 탈당, 바른미래당에 입당한 뒤 체급을 낮춰 광역의원에 출마했다.

기초의원은 ▲동구 가 김성숙(59·여) 동구의원 ▲동구 나 김용임(54·여) 박주선 의원 비서관 ▲동구 다 김대성(48) 광주시당 부위원장 ▲서구 나 송원영 전 KTF 광주마케팅본부 기획팀장 ▲광산 가 김동권(51) 광산구의원 ▲광산 나 조남주(55) 전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수행단장 ▲광산 라 김상보(28) 광주시당 부대변인 ▲광산 마 이준형(52) 광산구의원 등 8명이 링 위에 올랐다.

시당 관계자는 "광주 동구와 광산구는 전략지"라며 "시당 주요 당직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비서관, 구의회 의장까지 가능한 모든 전력을 쏟아붓고 있어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광주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광역, 기초의원 선거구 15곳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와 비례대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신청 마감일을 16일까지 연장했다.

뉴시스

민주평화당 장병완(가운데) 원내대표와 박지원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끝난 뒤 논의하고 있다. 맨 왼쪽은 조배숙 대표.

# 박지원 "추경·특검 18일 처리 합의는 5·18 무시하는 처사"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전날 여야 간 진행된 국회 정상화 합의와 관련해 "5·18에 추경을 통과시킨다는 합의는 5·18을 무시하는 반역사적인 처사로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15일 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 사직서 가결 처리는 좋은 국회였고 추경과 특검법을 18일까지 처리하자는 합의는 나쁜 국회로 가는 길"이라며 이같이 평했다.

박 의원은 "3일만에 추경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국회법도 절차도 무시하고 국민 혈세를 심의도 하지 말자는 초법적인 합의"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평화당은 21일 특검·추경 동시 처리를 제시해 국회 모든 구성원이 합의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만들고 본회의장에 들어갔다"며 "평화당의 본회의장 출석으로 정족수가 성립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본회의에 출석하는 계기를 제공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당을 기만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합의는 좋은 합의지만 눈앞의 이익 때문에 신의를 그르치는 또다른 합의는 국회를 망치는 원칙없는 야합"이라며 "다당제 하에서 국민을 기준으로 세우고 가지 않으면 앞으로도 거대 두 양당의 독단과 야합이 더욱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이런 모습은 집권 여당의 기본 자격도 없는 것임을 거듭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강기정·민형배·최영호

#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 측 "강·민·최 '원팀' 참여"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5일 "경선에 나섰던 강기정 전 의원과 당내 시장 예비후보였던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 최영호 전 남구청장이 원팀으로 6·13 지방선거 민주당 승리를 위해 이용섭 후보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용섭 선대본부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병훈 동남을위원장, 양향자 최고위원에 이어 강 전 의원과 민·최 전 구청장도 원팀에 동참키로 했다"며 "화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광주발전을 위한 민주당 원팀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과 함께 6·13 민주당 압승을 반드시 이뤄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려, 사람과 돈과 기업이 몰려오는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겠다"며 "2020 총선과 2022 대선 승리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각 후보 진영 간 실무 논의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원팀선언 현장에는 이 후보를 비롯해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한 세 후보 중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아 시종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됐고, 세 후보 핵심 참모들의 이 후보 캠프 합류도 이뤄지지 않아 "원론적 수준의 구두 협의를 세부 합의인 양 서둘러 발표한 것 아니냐" "무늬만 원팀"이라는 의구심이 일었다.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